

<3분> 집필 가이드

개앞맵시(이복연)
한빛미디어_IT출판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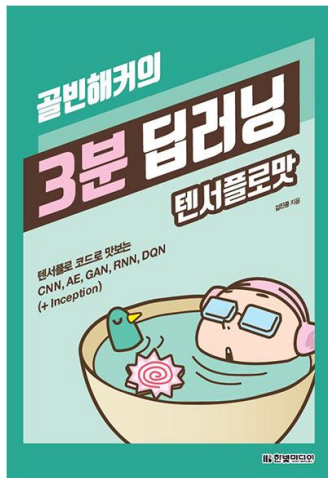
목차

- <3분> 시리즈 이해하기
 - 기획 의도, 도서 콘셉트, 큰 구성, 세부 구성, 기대 효과
- 내 책 구성하기
 - 주제 선정, 대상 독자 규정, 예제 수집, 목차 작성
- 내 책 쓰기
 - 서문 쓰기, 본문 쓰기, 지은이의 말



<3분> 시리즈 이해하기

대표 도서



골빈해커의 3분 딥러닝,
텐서플로맛

김진중 지음
264쪽
22,000원

[미리보기](#)



코딩셰프의 3분 딥러닝,
케라스맛

김성진 지음
384쪽
30,000원

[미리보기](#)

첫 두 작품이 모두 딥러닝을 다뤘지만, 어떤 분야든 상관 없습니다.



기획 의도

문제 상황

- 이론만 한참 읽다 보면 뭔가 많이 공부한 거 같지만,
 - 막상 구현하려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 지 막막하다.
 - 며칠만 지나도 공부한 내용이 가물가물하다.
 -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뇌용량 한계를 금세 넘어버려 진도를 많이 못 나가고 포기해버린다.

해법

- 이론은 꼭 필요한 만큼만, 개발자답게 **직접 코딩**해가며 몸으로 익힌다.
- 핵심을 잘 드러내는 **짧은 단계별 예제**들로 주요 개념을 하나하나씩 내것으로 만든다.



도서 콘셉트

“이론보다 코드로 먼저 배우는 개발자용 입문서! (짧은 예제 가득)”

- 주제 관련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들을 ‘직접 구현’하며 몸으로 익힌다.
- 각 개념을 설명하기에 아주 **매력적이고 짧은** 예제들로 구성한다.
- **개념의 핵심**이 잘 드러나도록 코드는 **담백**하게...
- **굵직한 흐름** 위주로 설명하고 자잘한 부분은 건너뛰거나 레퍼런스를 소개한다.
- 각 장을 짧은 호흡으로 실습한 후 독자가 **더 해볼 거리**를 제시하여 **응용력**을 키우고 부족한 부분을 **스스로 학습**할 수 있도록 한다.

★ ‘3분’은 물리적인 3분 안에 끝낸다는 뜻이 아닙니다!



큰 구성

기본 흐름(4단계 구성)

1. 큰 그림과 개념 이해
2. 실습 환경 구성
3. 워밍업 실습 프로젝트
4. 예제별
 - a. 짧은 개념 소개
 - b. 코드 중심 동작 설명
 - c. 전체 코드
 - d. 더 해볼 거리



세부 구성 - 앞부분

- 추천사(옵션)
- 들어가며
 - 도입 글(지은이의 말)
 - 이 책의 구성
 - 부/장별 핵심 내용 소개
 - 효율적으로 읽으려면...
 - 이 책을 마친 후



세부 구성 - 본문

- 1장 - 주제 전체를 아우르는 개괄
- 2장 - 개발 환경 구성
- 3장 - 주제 관련 프로그래밍 기초(Hello World)
- 4~n장 - 매력적인 실습 예제들(효율적인 이해를 위한 흐름순)
 - 예제 관련 개념/구조 설명(간략히)
 - 서브 주제별(절)
 - 코드 블록별 설명 - 연이은 {코드 블록 + 관련 설명} 형태
 - 전체 코드 - 복습용
 - 더 해보기(옵션) - 절에서 다룬 코드 기반 간단한 응용 속제
 - 더 보기(옵션) - 장 주제 관련,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게 권하는 참고 자료 소개



기대 효과

- 짧은 호흡의 예제들은
차근차근 **한 단계씩 정복**하도록 안내하여
 - a. 단계별로 작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안겨주어
 - b. 지속해서 다음 단계로 도전할 동기를 부여한다.
 - c. 또한 독자 스스로 학습 호흡을 조절하기 좋다.
- ‘더 해보기’ 요소는
 - a. 능동적 자세를 키워주고
 - b. 독자-저자 혹은 독자-독자 간의 추가적인 연결고리가 되어준다.
(저자가 커뮤니티나 블로그 활동 등을 하고 있다면 상승효과)

내 책 구성하기



주제 선정

멋드러진 짧은 예제를 많이 수집할 수 있거나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주제

- 개념 기술
 - 머신러닝/딥러닝, 데이터과학/분석, AR 등
- 앱 개발
 - 안드로이드/iOS 앱, 웹 앱, 게임
- 개발 패러다임
 - 함수형 프로그래밍, 반응형 프로그래밍 등
- 기타



주제 선정 (2)

도서 콘셉트와 어울리는가?

- 짧은 코드 예제 중심으로 핵심 개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인가?
- (이왕이면) 트렌디한가?

독자층이 있는가?

- 관련 커뮤니티와 경쟁서 판매 동향을 참조하여 출판사와 논의

내가 쓸 수 있는가?

- 매력적인 예제들을 충분히 수집(생성)할 수 있고, 내가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?



대상 독자 규정

대상 독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전 지식과 경험 수준 정의

- 프로그래밍 언어와 도구 숙련도
- 기초 이론 학습
- 유사 기술 혹은 경쟁 기술 경험



예제 수집

주제 관련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/기술 카테고리 작성 후, 설명을 위한 예제를 나열한다.

예> 머신러닝 개발자가 알아야 할 대표 딥러닝 모델별 예제 목록

CNN	Autoencoder	GAN	RNN	DQN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기초 신경망● MNIST● ..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기본 AE● 변이형 AE● 잡음제거 AE● ..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기본 모델● 원하는 숫자 이미지 생성● ..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MNIST● 단어 자동 생성● Seq2Seq● ..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장애물 피하기 게임● OpenAI Gym● ...



목차 작성

각각 핵심 개념 하나씩을 다루는 4~n장의 목차를 절 수준까지 확정한다. 예를 들어

- 4. 번역과 챗봇 모델의 기본, RNN
 - 4.1. RNN 기초
 - 4.2. MNIST를 RNN으로
 - 4.3. 단어 자동 완성
 - 4.4. Seq2Seq
 - 4.5. 더 보기

‘독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담았는지’, ‘논리 흐름과 난이도는 적절한지’, ‘흥미로운 예제인지’ 등을 고려해가며 전체 목차를 완성한다.

내 책 쓰기

샘플북과 원고 템플릿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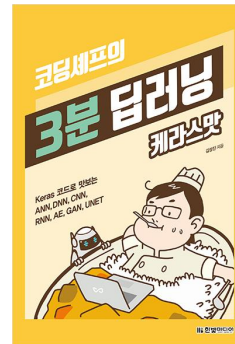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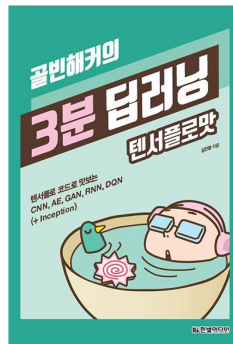
유(有)에서 유(有) 창조하기

샘플북

- 『골빈해커의 3분 딥러닝, 텐서플로맛』 - [미리보기](#)
- 『코딩셰프의 3분 딥러닝, 케라스맛』 - [미리보기](#)

원고 템플릿

- 준비중 (링크 추가)





서문 쓰기

책의 구성 방식과 그 의도, 다루는 범위를 기술하여 독자가 미리 대비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안내한다.

본문을 다 쓴 후 ‘이런 책을 썼다’며 정리하는 식보다는,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책을 상정한 후 다 썼다고 가정하고 ‘이런 책이다’를 알려주는 편이 낫다. 본문을 쓰다 보면 디테일에 몰입되어 자신이 아는 걸 다 쓰려 하기 쉬운데, 서문이 그 책의 콘셉트와 방향을 분명히 밝혀주어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준다.

- 들어가며
 - 들어가며 - 보통은 가장 나중에 작성
 - 이 책의 구성
 - 부/장별 핵심 내용 소개
 - 효율적으로 읽으려면... - 시리즈 공통
 - 이 책을 마친 후 -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을 범위를 미리 고민하여 밝히고, 관련 참고 자료 안내



본문 쓰기

3장까지는 본적인 예제 설명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 개념과 환경 구성, 실습 준비 단계다.

1. ‘큰 그림과 개념 이해’
 - 그림과 도표를 가능한 한 많이 동원하여 시각적으로 설명
 - 아키텍처 등 큰 그림을 이해하기 쉽고,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.
 - 필요한 그림은 스케치 수준으로 끄적여 사진으로 찍어두면 OK!
2. 실습 환경 구성
 - 초급자 대상이면 자세히, 중고급자 대상이면 간략히
 - 집필 기간 중 IDE 버전업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인터넷 자료의 링크만 걸어놓고, 본문 다 쓴 후 작성해도 OK!
3. 워밍업 실습 프로젝트
 -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 꼭 알아두어야 할 개념을 설명하고
 - Hello, World 정도의 맛보기 프로젝트 수행



본문 쓰기 - Code First!

이 책의 **핵심은 예제 코드**다. 예제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, 코드를 작성할 수 없다면 책을 쓸 수 없다. 또한, 코드가 완성되면 글(설명)을 풀기도 한결 수월하다. 그리하여

- 목차에 나열한 예제들의 실제 코드를 작성한다.
- 우선 동작하도록 작성한 후
 - 불필요한 잔가지를 없애고
 - 핵심이 잘 드러나도록 리팩토링한다.
- 코드의 주요 블록에 주석을 적절히 추가해, 나중에 꼭 설명해야 할 핵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다.
- 완성된 각 예제는 깃허브 등에 미리 공개해 커뮤니티의 검증과 피드백을 받아보면 좋다.



본문 쓰기 - 설명 덧붙이기

예제를 설명하며 각 장을 하나씩 완성한다. 예를 들어

4. 번역과 챗봇 모델의 기본, RNN - RNN의 개념과 특징 등 + 이 장에서 살펴볼 예제들 간략 소개
 - 4.1. RNN 기초 - RNN 구조와 핵심 원리 등을 그림과 함께 소개
 - 4.2. MNIST를 RNN으로 - 개념 이해와 동작 확인을 위한 가장 간단한 예제
주요 코드 '블록 단위'로 {코드 블록 + 관련 설명} 식으로 작성 (이하 동일)
 - 4.3. 단어 자동 완성 - 한 단계 더 실용적인 예제
 - 4.4. Seq2Seq - 실용 예제
 - 4.5. 더 보기 -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. 현실 세계 응용. 업계 현황 등



지은이의 말

독자와의 첫 인사 겸 에필로그 성격이다.

신변잡기나 퇴고까지의 어려움만 늘어놓기보다는 주제와 관련한 이야기가 좋다. 이 기술의 장점, 현황, 앞으로의 전망이나 희망도 좋고, 너무 뻔한 이야기다 싶으면 자신의 경험담을 곁들여 맛깔나게 이야기를 풀어도 좋다.

너무 약을 팔진 마시고, 진솔한 이야기로...